

사회

광주·전남 대학생 전세임대 선정됐지만...

전세난에 방 못구해 발 동동

집주인도 월세 선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들을 위해 전세 임대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업 대상자들이 전세난때문에 방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구(광주 350가구, 전남 100가구)를 공급한다. 전국적으로는 1만가구가 선정된 대학생들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임대료 7만~17만원만 부담하면 돼 인기가 높다.

전국 평균 45%에 비해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실제 광주지역은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라 화정·염주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대거 이동으로 전세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집주인들도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 크게 줄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임대차기구의 월세 비중은 지난 2005년 51.1%에서 지난해 60.8%로, 최근 5년 사이 9.7%포인트 높아졌다. 전세 10가구 중 1가구가 월세로 전환했다는 얘기가.

광주 총인시설 비리 수사 조선대 교수도 돈 받았다

대립 상무 구속 기소

광주 총인저감시설 시공사인 대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수 및 공무원의 수가 4명으로 늘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16일 총인저감시설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대립산업 윤모(52) 상무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윤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심사위원 전남대 교수 박모(51)씨와 광주 광산구청 국장 유모(58)씨는 구속됐으며 1000만원을 받은 예비심사위원 광주시청 서기관급 모 사업소장이모(57)씨와 조선대 교수 강모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나원침 (8504) 김장두



“중국은 탈북자 강제 복송 중지하라”

광주 탈북자복송중지위

중국에서 탈북자 31명이 강제 복송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 광주지역 탈북자들이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을 찾아 탈북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탈북자로 구성된 '광주탈북자강제복송중지위원회' 회원 10여명은 16일 오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북한이 정한 100일 예외기간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강제 복송될 경우 극형을 면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탈북자들의 복송 중단과 한국으로의 안전한 입국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탈북자로 구성된 '광주 탈북자 강제복송중지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주민들의 강제 복송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총영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보성 엽기 목사 부부에 범행 교사 40대 女 검거

보성경찰은 엽기적인 목사 부부가 3남매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범행 방법을 가르쳐 준 혐의(상해치사 교사)로 장모(여·45)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보성경찰은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43)씨 부부를 상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던 중 순천에서 장씨가 범행 방법을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반아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아프다 하자 ‘애들에게 귀신이 들어 그러니 때리고 물만 먹여라’는 장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기중기에 매달고 땅에 묻고...

대구서 조폭 영화같은 학교폭력

고교생·졸업생 등 4명 영장신청 후배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중기에 거꾸로 매달거나 땅에 묻는 등 조폭 영화나 등장할 법한 폭력 및 가혹행위가 실제로 고등학교 교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은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모 고등학교 졸업생 박모(20)씨와, 안모(18)군 등 이 학교 3학년 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졸업생 임모(20)씨는 입건해 해당 군부대로 넘겼다. 이 가운데 박씨와 임씨는 이 학교 3학년이 재학 중이던 지난 2010년 4월 상급생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당시 1학년이던 권군을 깊이 1m, 너비 1.5m 크기의 구덩이를 파 목판 나옴에 묻고 20~30분간 있도록 하는 등 1년 동안 후배들을 상대로 무려 28차례나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돈 상납받고 지우개 가루 먹이고...

광주 동부경찰, 친구 상습 폭행 중학생 '짱' 7명 입건

친구에게 지우개 가루나 쓰레기 가루 섞인 음료를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6일 동급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중학교 1학년 A(13)군 등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학급별로 짱을 뽑아 모임을 구성한 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특정 학생 2명을 표적 삼아 이유없이 일주일에 3~4차례씩 폭행하고 날짜를 정해 돈을 상납받는 등 동급생 21명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는 한편, 범행 가담이 경미한 3명은 '사랑의 교실' 등 선도프로그램 참여시키고 불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부 학생들은 정신질환을 호소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서 고교생 목매 숨져

16일 오후 2시께 광주 모고교 2학년 최모(17)군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방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여동생(1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군의 여동생은 경찰에서 “오빠가 낮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아 문을 열어보니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고3에 진학하는 최군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가정 문제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09일 고공농성 김진숙씨 부산지법, 징역 3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여·51)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환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으며 군사보안·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질서 경시와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무전취식 전과 16범 출소 7일만에 또...

○무전취식으로 구속됐던 30대가 출소 일주일 만에 광주·전남 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또다시 구치소행. ○16일 나주경찰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30)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나주시 중앙동 모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95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6곳의 술집에서 4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동종 전과 등 16범으로 지난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간 출소한 뒤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는 등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for Kim Young-pil Academy. Large text: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Subtext: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Table comparing 1st year/4th year and 3rd year/2nd year. Contact info: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www.kimyong.co.kr 개강: 3월 2일